

## 직업교육훈련시장 동향(4/4분기)

### I. 1999년 3/4분기의 전반적 동향 개관

1999년 3/4분기 중 산업생산은 수출 및 내수 호조 등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32%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작년 3/4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임금이 상승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1999년 2월 이후 실업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임금은 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에 힘입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취업자 수는 비임금근로자보다는 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실업자는 연령이 적을수록 실업률의 증가가 커서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노동 및 직업교육훈련시장은 새로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 청년층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1999년 1월 고용보험에 혜택이 실시되면서 각 산업체 내의 각종 교육훈련지원금이 감소하는 대신, 실업자 재취직 수당이 증가하여 사업체의 훈련보다는 실업자 훈련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가는 추세로 파악된다.

### II. 노동시장 동향

#### 1. 고용

#### ○ 고용지표 추이

1997년 대비 1998년도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1.0%의 감소세였으나 1999년 3/4분기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21,914천명으로 1998년 동기 대비 268천명(1.2%)이 증가하였다. 또한,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도 1998년 동기 대비 1.1%로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61.2%로 1998년 동기 대비 0.1%가 증가하였다. 지난 해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줄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하였고, 1998년과 1999년 1/4분기에 가장 저조하다가 2/4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표 1〉 참조).

1999년 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취업자는 1998년 동기 대비 3.2%가 늘었으며, 실업자는 23.6%가 줄어 상당히 회복된 결과를 보였다. 1999년 1/4분기부터 실업자의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져 1999년 1/4분기에 가장 높은 실업률인 8.4%에서부터 1999년 3/4분기에는 5.6%까지 낮아졌다. 이는 1998년 동기 대비 1.8%가



정 지 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시장분석실  
책임연구원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3,90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9천명(0.9%) 증가하였으나 1/4분기 대비로는 856천명이나 줄어들어 점차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

1999년 3/4분기에서 나타난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우선 농림어업에서 1998년 동기 대비 -3.8%로 둔화된 감소 경향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둔화의 원인은

<표 1> 고용지표추이

(단위 : 천명, %)

	1998				1999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5세 이상인구	35,362(1.5)	35,304(1.5)	35,423(1.5)	35,537(1.4)	35,616(1.2)	35,715(1.2)	35,820(1.1)
경제활동인구	21,456(-1.0)	21,725(-0.9)	21,646(-1.0)	21,511(-1.0)	20,854(-0.4)	21,797(0.3)	21,914(1.2)
경제활동참가율	60.7(-1.5)	60.5(-1.6)	61.6(-1.5)	60.5(-1.5)	58.6(-0.9)	61.0(-0.5)	61.2(0.1)
취업자수	19,994(-5.3)	20,244(-5.3)	20,249(-6.3)	19,924(-6.3)	19,105(-3.3)	20,362(0.6)	20,685(3.2)
실업자수	1,461(162.8)	1,481(169.8)	1,597(239.8)	1,587(182.9)	1,749(48.3)	1,435(-3.1)	1,229(-23.6)
실업률	6.8(4.2)	6.8(4.3)	7.4(5.3)	7.4(4.8)	8.4(2.8)	6.6(-0.2)	5.6(-1.8)
비경제활동인구	13,906(5.5)	13,579(5.7)	13,777(5.6)	14,026(3.6)	14,762(3.6)	13,918(2.5)	13,906(0.9)

자료 : 통계청(매월보도자료), 「고용동향」

<표 2>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 천명, %)

	1998				1999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농림어업	2,480(4.0)	2,801(7.8)	2,699(3.0)	2,329(-0.1)	1,839(-12.1)	2,591(-7.5)	2,656(-3.6)
제조업	3,919(-13.1)	3,877(-14.3)	3,792(-14.8)	3,885(-13.0)	3,849(-6.6)	3,942(1.7)	4,061(7.7)
서비스업	3,898(-13.0)	3,857(-14.3)	3,772(-14.7)	3,863(-13.1)	3,828(-6.6)	3,922(1.7)	4,030(7.1)
서비스업 중 기타서비스업	13,595(-4.3)	13,566(-4.9)	13,557(-5.4)	13,710(-4.3)	13,418(-0.9)	13,829(1.9)	14,037(3.5)
건설업	1,578(-21.3)	1,620(-21.5)	1,530(-26.0)	1,485(-26.4)	1,479(-24.1)	1,479(-8.7)	1,561(2.0)
서비스업 중 서비스업	5,571(-4.0)	5,563(-3.8)	5,538(-4.6)	5,594(-4.2)	5,598(0.1)	5,632(1.2)	5,766(3.9)
서비스업 중 공공서비스업	4,453(1.1)	4,483(-0.7)	4,483(0.9)	4,641(4.2)	4,608(7.1)	4,748(8.2)	4,720(6.3)
서비스업 중 운수·정보·금융업	1,992(-0.4)	1,995(0.2)	2,007(-0.5)	1,990(-1.6)	1,936(-2.1)	1,970(-1.3)	2,003(0.2)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각 호.

IMF 관리체제 이후 많은 노동력이 농업부문에 이동하였으나, 다시 경기회복으로 인해 비농림어업 부문인 광공업, 개인사업·공공서비스업으로의 이동이 주 요인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인사업·공공서비스업은 1998년 동기대비 5.3%나 증가하고 있어 1/4분기(7.1%)에 이어 2/4분기(8.2%)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에 1998년 (-21.3%) 이래 1999년 2/4분기(-8.7%)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 번 1999년 3/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0%로 상승세를 보여 건설업 취업인구의 감소현상이 회복추세로 돌아섰다.

○ 직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

1999년 3/4분기 직업별 취업자 수는 1/4분기와 2/4분기에 비하면 대체로 증가세가 강화되었으며, 직업에따라 감소세의 완화와 증가세의 강화 현상이 나타난다. 사무직과 농림어업직은 감소 추세가 완화되었으며, 나머지 직업인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서비스·판매직,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은 더욱 증가폭이 커졌다(〈표 3〉

참조).

사무직은 1999년 3/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5.3%가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지만 감소의 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 외환위기 및 구조조정 등이 사무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직은 1998년 매 분기별로 증가해왔으나 1998년 4/4분기를 기점으로 하여 1999년 1/4분기 이래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여 왔다. 3/4 분기에도 지속적으로 5.0% 감소하였다. 사무직과 농림어업직은 경기의 변동적 영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직종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의 경우 1998년 매 분기 증가추세였고, 1999년에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3/4분기에는 1998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하여 지속된 확대를 보이고 있다.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은 1998년 매 분기별 취업자수가 직종별로 가장 크게 감소해 왔으나 1999년 1/4분기(-1.5%)를 정점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되어 취업자수가 늘기 시작하다가 2/4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6.7%가 증가

〈표 3〉 직업별 취업자수

(단위 : 천명,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998년 동기	1999년 동기
총 취업자수	3,735( 1.3)	3,724( 0.5)	3,733( 0.1)	3,782( 2.4)	3,769( 2.2)	3,694( 0.2)
농림어업직	2,418(-6.0)	2,450(-5.1)	2,356(-7.9)	2,294(-9.9)	2,182(-15.2)	2,277(-12.0)
사무직	4,796(-2.7)	4,729(-2.3)	4,708(-3.5)	4,744(-3.9)	4,749(-0.3)	4,718(-1.2)
전문·기술·행정관리직	2,364( 4.0)	2,652( 7.4)	2,591( 3.6)	2,217( 0.0)	1,744(-12.0)	2,127(-18.9)
서비스·판매직	6,741(-12.5)	6,689(-14.1)	6,660(-13.9)	6,887(-11.1)	6,632(-1.5)	7,158(-5.4)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1,151( 6.7)	1,231( 7.0)	1,251( 7.3)	1,287( 7.7)	1,211( 6.2)	1,151( 0.0)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각 호.

하더니 3/4분기에는 9.7%가 증가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기술직과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IMF이후 경기회복과정에 가장 필요한 인력인 것으로 해석되며, 직업교육훈련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이러한 직업적 변화 양상과 증가와 감소의 추세를 파악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변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에서 비임금근로자는 1999년 2/4분기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오다가 3/4분기를 기점으로 하여 증가추세로 돌아서 1998년 동기에 비해 3.2%의 증가율을 보였다(〈표 4〉 참조). 이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1998년 매분기 증가세였던 것이 1999년 들어 급격한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감소율은 3/4분기에는 0.5% 정도로 완화되어 회복세를 보인다.

자영업주는 1999년 1/4분기까지는 감소추세 이다가, 3/4분기에 들어서 증가세이다.

임금근로자는 1/4분기에 3.8% 감소추세를 보

이고 2/4분기에는 2.3% 증가세로 반전하기 시작하여 3/4 분기에는 5.4%가 되었다. 상용근로자의 감소추세는 4.5%로 둔화되어가는 형편이다. 일용근로자는 급격한 증가세를 타고 3/4분기에는 3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과 구조조정은 임금근로자의 불완전 고용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향후 노동시장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게 한다.

○ **연령별 실업자 추이**

실업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9년 1/4분기에는 저연령층에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2/4분기와 3/4분기 들어 실업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분기의 실업자 수의 변화 추이를 1998년 동기와 대비하여 보면 15~19세는 실업률이

〈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단위 : 천명, %)

	1999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총 취업자	7,804(-1.0)	8,024(-0.5)	7,998(-1.6)	7,752(-1.4)	7,248(-2.6)	7,662(-2.0)	7,804(-1.0)
임금근로자	5,776(-3.4)	5,841(-4.0)	5,859(-4.4)	5,837(-2.2)	5,570(-0.1)	5,843(0.0)	5,841(-3.4)
비임금근로자	2,028(6.8)	2,183(10.4)	2,138(7.2)	1,915(1.2)	1,678(-10.5)	2,019(-7.5)	2,028(6.8)
실업자	12,191(-7.8)	12,220(-8.3)	12,051(-9.2)	12,172(-8.3)	11,857(-3.8)	12,500(2.3)	12,191(-7.8)
총 실업률	6,457(-9.7)	6,526(-10.4)	6,329(-10.4)	6,207(-10.6)	6,030(-10.9)	5,989(-8.2)	6,457(-9.7)
임금실업률	3,998(-4.4)	4,018(-2.3)	3,952(-7.1)	4,005(-8.9)	3,976(-1.1)	4,122(2.6)	3,998(-4.4)
비임금실업률	1,735(-6.3)	1,676(-12.9)	1,769(-9.8)	1,961(1.4)	1,851(20.5)	2,389(42.6)	1,735(-6.3)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각 호.

〈표 5〉 연령별 실업자수

(단위 : 천명, %)

	1998	1999				
		1/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3/4분기
15~19	86(20.9)	76(19.0)	90(21.9)	91(22.9)	113(26.2)	84(20.3)
20~29	526(11.4)	527(11.3)	548(11.9)	557(12.3)	573(12.9)	465(10.5)
30~39	358(5.7)	374(5.9)	411(6.5)	384(6.1)	445(7.2)	369(5.9)
40~49	281(5.5)	287(5.6)	315(6.2)	315(6.1)	355(6.9)	297(5.8)
50~59	162(5.2)	169(5.3)	184(5.8)	186(5.9)	204(6.9)	178(5.6)
60세 이상	47(2.4)	49(2.4)	49(2.4)	56(2.8)	59(3.4)	50(2.9)

주 : ( )안은 실업률임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각 호.

17.3%(실업자 78천명), 20~29세는 9.1%(실업자 407천명)로 15~29세의 청년층이 기타의 연령층에 비해 실업률이 높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고실업률은 경기침체로 인해 신규노동력의 고용흡수가 계속해서 제약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기의 회복세로 청년층의 실업 증가 추세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

30~39세와 40~49세 연령층에서는 1999년 3/4분기 현재 실업률이 각각 4.6%, 4.7%로 점

차 둔화되는 경향이다. 경기회복의 속도에 대응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실업률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임금

### ○ 명목임금, 실질임금 모두 증가세 지속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체의 1999년 3/4

〈표 6〉 최근의 월평균 급여동향

(단위 : 천명, %)

	1998	1999				
		1/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3/4분기
상용근로자	1,427(1.8)	1,385(-1.2)	1,417(-8.1)	1,475(-0.4)	1,511(5.6)	1,535(16.4)
비상용근로자	1,070(3.7)	1,043(4.9)	1,047(3.2)	1,057(1.1)	1,088(3.2)	1,107(1.7)
제조업	506(18.5)	100(-18.2)	100(-16.5)	106(-10.6)	117(20.8)	135(33.5)
서비스업	276(-2.3)	242(-15.1)	270(-33.8)	312(-1.4)	306(8.9)	299(18.5)
건설업	721(-9.3)	1,176(-8.6)	1,204(-14.2)	1,247(-6.0)	1,277(4.8)	1,297(6.3)
농림수산업	137.8(7.5)	117.8(8.2)	117.7(7.0)	118.3(6.0)	118.3(0.4)	116.5(-1.5)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분기의 명목임금은 1,639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5.6%가 증가하였다. 소비자물가 인상분을 고려한 실질임금도 1,383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4.8%가 증가하였다(〈표 6〉 참조). 이러한 결과는 올해 1/4분기부터 임금이 증가세로 돌아선 후 2/4분기를 거쳐 3/4분기에는 경제의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은 경기회복으로 나타난 소득증가분이 임금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명목임금을 내역별로 보면 전년동기에 비해 정액급여는 5.9%, 초과급여는 32.4%, 특별급여는 47.2%로 증가하여 정액급여의 증가보다는 초과급여, 특히 특별급여의 증가는 현저하다. 이는 경기회복과 함께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초과급여의 비중이 높아졌고, 각 기업이 외환위기로 인한 자금압박에서 벗어나면서 위축되었던 특별급여의 지급이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산업별 임금동향

산업 중 건설업이 1998년 동기 대비 21.3%의 증가율로 가장 급격한 임금상승률을 보인 것은 1999년 3/4분기 임금동향 중 가장 주목할만하다. 또한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분기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3/4분기에는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임금이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업종은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임금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더 많은 산업에서 아직은 예년 임금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사업체 규모별 임금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본 1999년 3/4분기 중 임금상승은 1/4분기와 2/4분기에 이어 상승폭이 심화되었으며, 또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임금상승폭이 증가하는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규모별로 100~299인은 전년동기대비 15.3%, 300

〈표 7〉 산업별 평균임금

(단위 : 천명, %)

	1998	1999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총액	1,525(-2.5)	1,522( 1.0)	1,494(-4.6)	1,586(-0.2)	1,418(-5.5)	1,525( 0.2)	1,525( 0.2)
제조업	1,284(-3.1)	1,244(-3.9)	1,262(-11.1)	1,383( 4.8)	1,366( 9.0)	1,365( 11.3)	1,293(-10.4)
건설업	2,021(-2.7)	1,757(-3.7)	2,090( 2.0)	1,993(-16.0)	2,243(-0.1)	2,318( 32.0)	-
도·소매업	1,502(-7.5)	1,465(-6.2)	1,484(-12.8)	1,518(-8.0)	1,605( 4.3)	1,484( 1.3)	1,601( 31.3)
음식숙박업	1,365(-2.1)	1,325(-0.9)	1,355(-8.1)	1,418( 1.7)	1,359(-0.4)	1,299(-2.0)	1,355(-8.1)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351(-3.4)	1,345(-2.5)	1,354(-7.3)	1,336(-8.8)	1,491( 9.1)	1,556( 15.7)	1,354(-7.3)
공공행정 및 부동산업	1,579(-4.1)	1,526( 0.7)	1,565(-10.1)	1,585(-5.4)	1,753( 7.1)	1,857( 8.6)	1,567(-10.1)
농업 및 개인 서비스업	1,810(-0.3)	1,760( 4.4)	1,833(-3.3)	1,788(-3.3)	1,763(-5.2)	1,549(-12.0)	1,839(-8.3)

주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표 8〉 사업체 규모별 임금

(단위 : 천명, %)

	199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00인 이상	1,255(-2.2)	1,223(0.8)	1,256(-8.5)	1,261(-1.3)	1,333(4.1)	1,311(1.7)
10~29인	1,397(-2.6)	1,261(-0.8)	1,313(-7.6)	1,333(-2.0)	1,389(5.1)	1,341(3.5)
10~29인 미만	1,332(-2.6)	1,345(-1.5)	1,396(-5.7)	1,415(-2.8)	1,464(8.9)	1,502(2.6)
10~29인 미만	1,370(-3.0)	1,547(-2.0)	1,566(-7.8)	1,623(-3.0)	1,668(2.2)	1,742(4.5)
10~29인 미만	1,705(-0.5)	1,703(-0.9)	1,701(-8.5)	1,911(7.0)	1,849(5.3)	1,569(-15.4)
임금격차	149.6	139.2	135.4	151.5	138.7	139.9

주 : 임금격차 = (500인 이상 규모 임금총액 / 10~29인 규모 임금총액) × 100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호에서 계산.

~499인은 전년동기 대비 17.3%, 그리고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전년동기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인 18.0%나 상승하였다(〈표 8〉 참조).

2/4분기에 7.4%, 6.3%의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저조했던 10~29인, 30~99인의 중소기업 사업체에서도 3/4 분기에는 비교적 상승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500인 이상과 10~29인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격차가 115.4로 전년동기대비 20.0포인트가 저하되어 향후 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1998년 이래 가장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 Ⅲ. 직업교육훈련

#### 1. 직업훈련

##### ○ 실업대책 직업교육훈련실적 총괄

1999년 3/4분기 현재 145천명이 실업대책 직업훈련을 실시했거나 실시중이다(〈표 9〉 참조). 직업훈련실시내용을 재취업훈련과 인력개발훈련

으로 구분할 경우, 재취업훈련을 받은 인원은 전년동기대비 7천명이 감소하여 127천명이었다. 이 중 고용보험 적용 실업자가 67천명이고,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는 60천명이었다.

그리고 인력개발훈련은 1998년 동기 대비 12천명이 늘어 전체 1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인력개발훈련 중에는 기능사 양성훈련이 16천명(106.7%), 우선직종훈련에 8천명(51.2%), 유급 휴가훈련에 2천명(8.5%)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기반경제 확충의 일환으로 정부의 직업훈련지원이 인력개발훈련 분야인 기능사양성, 우선직종훈련, 창업훈련, 그리고 유급휴가훈련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1999년 3/4분기 직업훈련 실적은 2/4분기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이지만, 1998년에 비하면 활성화 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 호전으로 인하여 취업률이 상승한 바 전년도에 거의 없던 중도탈락자의 수가 증가하였다고 판단된다.

〈표 9〉 실업자 직업훈련실적

(단위 : 천명, %)

	1998	1999				합계	1998 대비 (%)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실업자	363	72	140	82	101	181	145
재취직	344	70	134	89	83	180	127
비취직	170	46	59	49	57	112	67
비취직(비취직자 제외)	164	24	75	30	26	48	60
비취직(비취직자 포함)	29	2	6	3	18	21	18

주 : 훈련실적의 산정 기준은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모집하여 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을 위탁받은 인원임.

자료 : 노동부, 『실업대책 직업훈련 실시현황』, 각 호.

○ 고용보험사업의 능력개발사업 지원실적

1999년 3/4분기 현재 직업능력 개발사업 지원금은 115,362천원으로 1/4분기와 2/4분기에 비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역별로는 실업자 재취직 훈련비용이 49.1%인 56,666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실업자 재취직 훈련수당이 15.1%인 17,458천원, 사업내 직업훈련지원금이 0.6%

로 662천원, 교육훈련지원금 0.2%, 257천원, 교육훈련 유급휴가지원금 0.1%, 65천원으로 집계된다.

총 능력개발 사업 지원비는 증가하였으나, 1999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실시되어 사업내 직업훈련지원금 등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IMF 외환위기 이전

〈표 10〉 능력개발 사업지원 실적

(단위 : 천명, %)

	1997	1998		1999	1999 대비 (%)
		1/4분기	2/4분기		
실업자 재취직 훈련비용	8,634(14.7)	9,904(3.8)	1,424(2.2)	1,296(1.4)	64,266(55.7)
실업자 재취직 훈련수당	2,262(3.8)	191,194(74.2)	29,437(45.9)	55,433(58.4)	52,759(45.7)
비취직자 직업훈련비용	-	-	22,521(35.1)	23,488(24.8)	17,458(15.1)
비취직자 직업훈련수당	19,728(33.5)	30,505(11.8)	6,712(10.5)	1,248(1.3)	22,712(19.7)
비취직자 직업훈련유급휴가지원금	13,027(22.1)	9,117(3.5)	1,381(2.2)	546(0.5)	3,547(3.1)
비취직자 직업훈련교육지원금	15,223(25.9)	16,950(6.6)	2,619(4.1)	7,921(8.4)	40,254(35.0)
합계	58,873(100.0)	257,671(100.0)	64,094(100.0)	94,843(100.0)	115,362(100.0)

주 : 실업자재취직훈련수당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실업자재취직훈련비용에 합산집계됨.

자료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통계월보』, 1999. 10.



에 비해 지원금의 액수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역별로도 1997년 교육훈련 및 유급휴가의 지원금이 높았던 것과 비교하여 1998년 이후 실업자 재취직훈련과 관련 직업훈련지원액이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실업문제 해결의 지가 고용보험사업의 능력개발지원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률이 종래의 수준만큼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용보험사업에서 실업관련 사업 지원이 계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적 요인에 의한 실업은 크게 감소한 상태이므로 향후 실업대책은 구조적 실업을 축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2. 직업교육

### ○ 고등교육 진학률의 급격한 증가

1999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66.6%, 진학희망률은 76.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9년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84.5%,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률은 38.5%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이와 같은 대학진학률의 빠른 증가는 대학정원의 확대와 인구증가율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대학정원 대비 진학희망자의 비율로 계산한 진학기회율은 1999년 102.3%로 진학을 희망하는 고졸자들이 대부분 진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학기회율은 향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 및 진학희망률이 일반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교육기관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표 11〉 고등학교 진학을 현황

(단위 : %)

	진학률			진학희망률		
	일반계	실업계	합계	일반계	실업계	합계
1997	96.4	53.8	13.3	60.1	82.8	90.0
1998	93.2	47.2	8.3	63.0	86.0	82.1
1999	91.1	72.8	19.2	69.4	91.8	86.6
2000	90.1	81.4	29.2	75.6	95.1	87.4
2001	84.1	83.8	35.6	78.9	96.5	83.5
2002	86.6	84.5	38.5	76.9	93.8	80.4

주 : 1) 대학진학자와 정원은 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을 각각 합계한 것임.

2) 진학희망률 = (당해연도 졸업자 중 진학희망자/당해연도 졸업자) × 100

3) 진학기회율 = (당해정원/졸업자 또는 진학희망자) × 100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보여준다.

○ 비진학 청소년의 감소

비진학 청소년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9년에는 75,781명으로 감소하였다. 비진학 청소년 고등학교 졸업자가 70,778명, 중학교 졸업자 3,957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1999년도의 비진학 청소년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표 12〉 참조). 이와같은 비진학 청소년의 감소추세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

대에 따른 대학진학률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9년 현재 사망 및 질병을 제외한 탈락자 수는 78,690명으로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학교 수준별로 고등학교의 탈락자수는 49,635명, 중학교는 19,481명, 초등학교는 8,573명, 기타학교에서 1,001명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 취업자 수 및 취업경로별 취업자의 구성

1999년 학교급별 취업자 수는 실업계 고등학

〈표 12〉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단위 : %)

	1990	1995	1997	1998	
초등학교	1,705	827	340	339	326
중학교	36,150	12,391	4,678	4,069	3,957
고등학교	247,942	96,752	73,901	86,170	70,778
기타학교	949	892	520	668	720
합계	286,806	110,490	79,439	91,246	75,781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13〉 재적·중퇴 및 휴학자 수

(단위 : %)

	1990	1995	1997	1998	
초등학교	1,235	1,074	1,478	8,269	8,573
중학교	21,421	13,247	24,992	25,316	19,481
고등학교	42,611	41,878	53,775	58,428	49,635
기타학교	4,201	1,308	905	1,023	1,001
합계	69,408	58,878	81,150	93,036	78,690

주 : 이 표의 수치는 사망, 질병을 제외하고 가사, 품행, 기타에 해당하는 탈락자수를 합한 것이다.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14〉 취업자수 및 취업경로별 구성비

(단위 : %)

	실업교			일반고			전문대		
	1996	1999	1997	1998	1999	1996	1999	1997	
취업자수	177,532	164,075	148,478	16,204	12,807	12,726	115,096	114,038	115,274
취업률	(81.7)	(84.7)	(84.9)	(22.0)	(18.5)	(18.0)	(61.8)	(60.3)	(62.3)
학교추천	56.3	48.3	47.6	25.9	20.2	20.4	53.43	22.99	29.9
실업	7.8	6.3	3.4	5.6	6.7	4.8	19.4	20.7	25.8
친구 및 친지의 소개	11.8	13.7	18.9	25.1	27.9	33.6	-	22.53	18.9
학교	20.5	25.4	22.1	24.7	22.9	18.1	-	22.53	18.9
친구 및 친지의 소개	1.4	2.1	2.6	4.9	5.7	6.5	5.7	5.3	5.0
학교	0.6	1.0	0.9	2.5	2.4	1.6	-	1.1	1.0
실업	2.5	3.1	4.2	11.3	14.1	14.8	21.5	31.7	29.9

주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 × 100 단, 전문대 취업률은 진학자 제외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교가 148,478명, 취업률 84.9%, 일반계 고등학교는 12,807명, 취업률 18.0%, 전문대학은 128,308명, 취업률 62.5%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세로 돌아섰다.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에서 직업창출의 제한으로 인해 취업률이 감소되어 오다가 경기 회복세를 타고 다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999년 현재 취업경로는 실업계 고등학교

의 경우 학교추천 47.6%, 실습 22.1%, 친구 및 친지의 소개 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친구 및 친지의 소개 33.6%, 학교추천 20.4%, 그리고 실습 18.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서는 학교 추천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친구 및 친지 소개가 상대적으로 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표 14〉 참조).